

# 전북관광자유이용권 개선 방안 절실

### 연계 콘텐츠·홍보 부족등으로 판매실적 부진...이용 관광객 혜택 실감하지 못해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A씨(40세, 남)는 지난 설 명절 전인 소제의 부 모님 댁에 내려오면서 아내와 함께 고향인 전북 관광을 계획해 실행했다. 이를 위해 출·퇴근 길에 지하철 광고를 통해 봤던 '전북관광자유이용권(교통추가형)' 2개를 구매해 한옥마을 및 삼례문화예술촌 등을 관광했으나 관광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 영 쪼뻛했다. 가격에 비해 그다지 즐길 게 없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토탈관광의 일환으로 2016년 '전북관광자유이용권 전면실시'를 올해 10대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추진에 있으나 좀처럼 진전이 없는 모양새다.

연계된 콘텐츠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한 판매실적이 부진한 데다 이를 이용한 관광객들마저 '전북관광자유이용권(이하 관광패스권)'의 혜택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27일 5,000장을 발매한 관광패스권은 현재 2,400여 장 판매됐다. 한달 평균 700여 장 판매된 것이다. 이에 비해 지난 해 '전주 한옥마을'을 관광한 관광객 수는 965만명으로 월 평균 80여만명에 달한다. 현재 관광패스권은 기간별로는 1일권과 2일권, 기능 별로는 자유이용권과 교통추가형 자유이용권으로 분류해 1일권의 경우 각각 6,500원, 12,000원, 2일권의 경우 11,000원, 21,000원으로 전북지역 6개 소관주 5개소, 완주 1개소)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를 사용할 경우 전주지역 5개소와 완주군 5개소에 대한 무료입장이 가능하고 교통 추가형의 경우 전주시와 완주군의 13개(전주 12개소, 완주 1개소) 공영주차장에서 2시간무료(완주 대둔산 공영주차장만 전일 무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관광패스권으로 지정된 관광지를 이용하는 것과 관광패스권 없이 '선택적' 관광을 하는 2가지 경우를

볼 때 가격이나 시간적으로 관광패스권 구매가 반드시 '배력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점.

실제 전주시의 지정된 관광지 5개소만 볼 때 이를 모두 이용한다 하더라도 실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10,300원이다. 1일권 교통추가형 관광패스권은 12,000원에 구입했을 경우 1,700원의 차액으로 2시간 주차를 하는 셈이 된다. 게다가 전주 관광지 5개소 중 전주 동물원은 다시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관광하고 싶은 곳을 '선택적'으로 관광하는 관광객에 비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 휴일이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 관광패스권으로 지정된 주차 공간에서 주차하기도 힘들뿐더러 지정된 곳에 주차를 한다 할지라도 주차지와 관광지와의 거리가 멀어 불만을 토로하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또한 전주와 완주를 오가며 관광할 경우에는 시간적인 문제로 인해 관광

패스권이 오히려 더 많은 관광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비용의 문제를 떠나 이용할 콘텐츠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당초 도는 관광패스권 이용시 문화공연(뮤지컬추천, 한옥스캔들) 할인 혜택 등을 부여하는 등 콘텐츠 향상에 힘썼으나 현재는 해당 공연들의 종료로 이용 콘텐츠가 줄어든 셈이다. 이에 도 관계자는 "15일 회의를 통해 관광패스권의 인지도 확대 및 전주 한옥마을권이나 수화여행 그룹권 등의 수요자 맞춤형 자유이용권 설계를 통해 관광패스권의 수요를 올릴 계획이다"라며 "14개 시·군과 관광패스권 업무협약과 시·군 주차장 및 관광시설 관련조례 합인조항 등을 개정, 특별가맹점(맛집, 숙박, 체험, 교통 등)을 늘려 도내 특정 관광지에 편중된 관광객 집중 현상을 극복하고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 전북도,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올해 241억원 조성

전북도는 15일 올해로 23년째 맞는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이 지난해 보다 13억원 증액한 241억원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은 1993년도 처음 조성될 당시 전북도만 기금을 출연했으나 2009년부터는 7개 시·군(익산, 정읍, 김제, 완주, 임실, 순창, 부안)이 출연했으며 현재 기금운영은 북농협과 협약해 원금은 소진하지 않고 최대 2,000억원까지 농협 여신규정에 의해 저리융자 지원하고 있다.

농자이율은 당초 3.95~4.95%이나, 융자이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금에서 이차보전을 해주어, 기금을 출연한 7개 시·군은 1%, 미출연 시·군은 2%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자금별 지원 조건은 운영자금일 경우,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을 용

자 받을 수 있으며, 상환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시설자금일 경우에는 개인은 2억원, 법인은 5억원까지 용자 받을 수 있으며,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 경영상 자금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시·군을 통해 수시로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을 신청하면 전북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용자 받을 수 있다. 또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연재는 필요한 경우 시·군을 통해 용자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정영수 기자

## 전북도의원 최영규 예비후보 출마선언

언론인 출신 최영규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의원(익산 제4선거구) 예비후보(이하 최 후보)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경 익산시 프레젠테이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최 후보는 "술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혔다. 이제 기자로도 돌아갈 수 없다"며 "담대하면서 패기 있게 뚝뚝 뛰며 앞으로 나아 가겠다"고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최 후보는 "지난 10여년간 언론에 몸담으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집 밖으로 뛰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대변을 해왔다"며 "반드시 도의회에 입성해 서민과 청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 항상 주민곁에서 힘이 되겠다"고 전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 전북창조센터 4대사업 추진

### 규제 프리존 활용 탄소·농생명 전략사업 등

15일 전북도는 창조경제 혁신기관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북창조경제협의회(공동의장 이형규 정무부지사, 김종국 전주대 교수)를 열고 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진수)의 2016년 4대 중점 추진방향을 세웠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앞으로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전략산업(탄소, 농생명)의 시행계획 마련과 실증사업 추진 ▲고용중심의 맞춤형 취업 정책 추진 ▲혁신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융성 사업 및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을 위한 '창업인프라 확산' 등을 중점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대표들은 2016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기관별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창조경제 연계 협력 방안을 토론했다.

이날 이형규 의장은 "전북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 가는 거점 기관으로 출발해 지난 1년 전북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탄소, 농생명, 문화융성 산업의 씨앗들이 하나 둘 싹을 틔우기 시작, 성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센터에 '고용존을 구축해 지역 산업계, 대학, 고용서비스기관을 연결하는 허브 기능이 추가되고 '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을 기본으로 지역 기관들의 융합이 필수이다"고 말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김진수 센터장은 "2016년 중점 추진방향 설정에서 창조를 통한 더 큰 도약, 도약을 통한 굳건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혁신기관의 협조와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 전북도의회 임시회 개최

전북도의회는 이달 16~25일까지 제 32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각종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 심의와 상임위원회별 현장의정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산지역 사드(THAAD, 고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 반대 결의안 등을 처리한다. 뿐만 아니라 2016년도 상반기 도정실국회의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청취한 뒤 사업의 실효성 및 예산의 낭비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동부권 사업현장과 장애인복지관, 전국동계체전 전북선수단 격려 등을 위한 현장의정활동도 전개한다.

이번 회기 중에는 강병진(김제) 산업경제위원장과 최은희(더불어민주 비례), 강용구(남원2), 허남주(새누리당 비례), 이현숙(무소속 비례)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 할 예정이다.

김영배 의장은 "이번 회기 중에는 2016년 상반기 전북도가 추진하는 각종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북문화재위원회 위촉식 15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제23기 전북 문화재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에 송허진도지사을 비롯한 문화재 위원들이 위촉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도, 올해부터 기업지원 소식지 매월 발간·배포

15일 전북도는 도내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나 새로운 소식을 제 공해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도의 정책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지원 소식지(Newsletter)를 매월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기업지원 정책 홍보지 성격에 탈피해 도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소식지 주요내용은 그달의 정부 정책관련 핫이슈 도 및 정부기업지원

시책, 달라지는 기업지원 관계법령, 통계, 정부동향 등을 파악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아 제작할 예정이다.

발간된 소식지는 전자파일로 제작돼 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정영수 기자

## 스피치·응변·면접·리더쉽·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 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교수
- 한국응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과정 설치 강이자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쉽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케어니케이션', '나를 세운말, 말만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람들 TV현장다시보기 등 방송출연



---

※ 과 목: ①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② 스피치최고지도사(고급)  
 ③ 주말반: 토요일(매주 1회수업) ④ 면접반

---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정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